

	보도 설명자료	
	배포일시	2019. 10. 31.(목) / 총 3매(본문 2)
국토교통부	담당자	•신공항기획과장 정용식, 사무관 전 진 •☎ (044) 201-4138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제주 제2공항 사업은 현재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 (경향신문, '19. 10.31(목) >

- ◆ “제주 2공항 입지타당성 매우 낮아” 정부, 대안입지 요청 묵살 의혹도
- 조류충돌 위험 등 석달전에 보완 요청했지만 국토부, 환경부 변화없어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제주 공항 포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- 금년 6월 기본계획(안)을 마련하여 현재 지자체·환경부·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으로, 지난 6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지역 및 환경부 의견수렴(6.28~7.26)과 주민 요청에 따른 공청회(8.22)도 진행하였습니다.
- 동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부 의견 등을 보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마련, 환경부와 9.20일부터 협의중에 있습니다.
- 특히, 초안협의를 환경부가 제시한 항공기-조류 충돌 측면에서의 평가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
 - 철새 종류별 예정지 및 주변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조류별 발생가능성과 충돌위험성을 평가하는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고, 조류 충돌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.

- 현재,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, 검토 결과 환경부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는 충실히 보완할 예정입니다.
- 또한, 세부적인 환경에 대한 대책 등은 실시 설계 단계에서 진행 예정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 기획과 전 진 사무관(☎ 044-201-413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환경부 보도 설명자료	제 공 일	2019년 10월 31일
	소관부서	자연보전정책관실 환경영향평가과
	담당자	차은철 과장/ 오수미 사무관 (044-201-7290/7293)

제목 : 항공기-조류 충돌 위험성을 중점 평가할 계획임

[경향신문 2019.10.3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(KEI) 검토의견을 감안하여 항공기-조류 충돌 측면에서의 입지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국토부에 의견을 통보함
- 2019.10.31일 경향신문 <“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성 매우 낮아” 정부, 대안 입지 요청 묵살 의혹도>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-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을 느껴 KEI 보완 의견을 국토부에 제대로 개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

- 환경부는 KEI 검토의견을 감안하여 항공기-조류 충돌 측면에서의 입지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국토부에 통보함
 - KEI는 현 사업지구가 「조류 및 야생생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」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, 동 기준을 만족하는 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함
 - 환경부는 KEI 의견을 감안하여 현 사업지구가 「조류 및 야생생물 충돌위험감소 기준」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, 항공기-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제시하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함
- 현 사업지구 주변에 다수의 조류유인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조류-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, 항공기-조류 충돌 위험성을 중점 평가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임